

# 꼬마배나무이의 효율적인 방제법

조영식 배시험장  
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

## 꼬마배나무이 상태

꼬마배나무이는 다 자란 성충형태로 주로 배나무의 들떠 있는 나무껍질 밑에서 97% 이상이 월동하며 일생을 보낸다. 성충은 기온이 7℃ 이상만 되면 활동을 시작한다. 배나무 위로 이동하는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 무렵이며 이 시기부터 교미와 산란을 한다. 암컷은 3~4주 동안 생존하며 약 250(100~1,000)여 개의 알을 낳는다.

## 꼬마배나무이 방제가 어려운 이유

발생이 심한 늦봄에서 초가을까지는 꼬마배나무이들이 과충, 엽충 틈 또는 잎맥의 주맥 기부에서 기생한다. 왁스질, 점질의 배설물을 배출해 보호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약을 살포해도 방제하기 어렵고, 배 재배 기간 중에는 성충부터 알, 애벌레까지 다양하게 서식하기 때문에 방제가 어렵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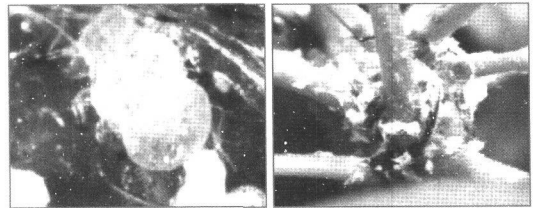
## 꼬마배나무이의 효율적인 방제

**월동 성충방제** : 꼬마배나무이 생태를 알고 적기에 방제하는 게 중요하다. 이른 봄에 월동형 성충이 이동하는 시기를 예측해 기계유유제를 살포하면 성충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성충이 배나무 가지에 산란을 기피하

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.

**배 재배기 방제** : 배나무의 만개기에 월동형 성충이 낳은 알이 50~80% 정도 부화하고 왁스질이나 배설물로 뒤덮이기 전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만개기 직후에 약제를 살포하는 게 좋다. 꼬마배나무이의 성충은 활동영역이 넓기 때문에 주위 과수원과 공동으로 방제하는 게 재감염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. 발생이 심해 농약으로 방제할 경우, 농약살포 후 효과를 확인하고 방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.

**재배적인 조치** : 꼬마배나무이는 배나무 생장이 지나친 과수원에 심하게 발생하므로 과실 생산에 충분할 정도로만 질소를 시비한다. 불필요하게 자란 새순 또는 도장지, 잎과 과실의 비율을 고려해 잎을 제거해야 약제효과를 더 볼 수 있다. ㉔



▲ 꼬마배나무이 어린 애벌레

▲ 피해증상(배설물 아래 애벌레 생육 중)

(출처 : 농촌진흥청 녹색농업기술 2011년 5월호)